

충남교육청, 도내 모든 학교서 독서토론 동아리 운영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계획 발표



충남교육청 전경



보령 정보초·청라초 학생들의 독서 토론 교육

올해부터 충남의 모든 학교는 독서 토론 동아리를 운영해야 하며, 100만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충남교육청은 2월 3일 교육과정 중심 독서삼락(讀書三樂) 교육, 독서 토론 학생 동아리 운영,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인문 교육 등 올해 독서인문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과정 중심 독서삼락 교육은 독서인문 토론 수업이 중심이 되는 활동으로, '읽고 토론하고 체험하는' 세 가지 즐거움을 단계별로 실천하는 프로젝트 학습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에서는 학년에 따라 '그리고, 요약·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중·고교에서는 짝 토론이나 직파토론 학습을 중심으로 독후활동을 진행한다.

모든 학교는 논리적 사고력과 민주시민의 토론 역량을 키워주는 독서 토론 동아리를 운영해야 하고, 100만원 이상 관련 예산을 책정하도록 했다. 마을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인문교육은 마을도서관을 활용한 수업과 마을교사 학교 순회 교육 기부, 주말

돌봄 독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뤄진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다양한 독서인문교육 활동을 통해 창의·융합 미래 역량을 다지는 행복한 학교 독서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꿈이룸 엔젤기업' 현판 수여

충남교육청은 2월 12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실업계고 학생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기업체 11곳을 선정해 학교 친화 기업을 인증하는 '제4회 꿈이룸 엔젤기업 현판수여식'을 가졌다.

대상 기업 선정은 실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부당행위, 산업재해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이뤄졌다. 올해는 기계, 금속, 전기, 농산물, 의료, 환경 기술, 냉동 기술 분야 기업 외에 대전대 천안한방병원과 경제단체인 당진상공회의소가 선정되는 등 업종이 다양해졌다.

현판 수여식 후 김지철 교육감을 비롯해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 기업인, 추천학교장 등 30여명은 실업계고 취업 활성화 간담회를 했다.

김지철 충남 교육감은 학생 취업에 힘써준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학생들을 인성과 직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지철 충청남도 교육감

따뜻한 공동체 즐거운 배움터

충남마을학교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충남교육청은
110개 마을학교와 함께
마을과 교육의 미래를 열어갑니다